

# 설교

Sermon

**“희년, 완전한 회복으로”**



6년 + 1년 (안식년) = 7년

6년 + 1년 (안식년) = 7년

6년 + 1년 (안식년) = 7년

6년 + 1년 (안식년) = 7년

6년 + 1년 (안식년) = 7년

6년 + 1년 (안식년) = 7년

6년 + 1년 (안식년) = 7년

 49년

49년 + 1 = 50년 (희년)

희년: 자유의 선포, 충만한 휴식

1. 자유와 회복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

11-12. 오십 년이 시작되는 해는,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.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,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,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 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. 그 해는 희년이다.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.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.



선포, 삼의 모든 영역에서

위기인가, 회복의 기회인가?



하나님의 내 삶의 충만한  
임재는 어떻게 일어나나?

17.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.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.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

38.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,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,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

2.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매일 기대하며 연습해야 한다.

15-16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 
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 
차게 세고,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 
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오십 일이 될 것이다.  
그 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  
로 바쳐야 한다.

3. 우리는 진정 기록해져야만 한다.

18-19 "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.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,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.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,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,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,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,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."